

인수위 업무보고 종료... '이명박 정부' 국정방향

기업규제 완화·서민 지원 총력

'MB노믹스' 초고속 추진 윤곽 정부 조직 14~15개로 축소

대통령직 인수위의 각 부처 업무보고가 8일 끝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짐을 덜어내고, 각종 규제에 밧이 묶인 기업들의 기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MB(이명박) 노믹스'의 핵심은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 내수가 살아나 성장의 동력이 확보되고 분배의 여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다. 이를 위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파이 키우기'만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성장의 혜택이 경제의 싹틔움에 해당하는 서민과 중산층으로 고루 퍼지도록 한다는 게 이 당선인의 강한 의지다. 당장 유류세와 통신비 인하로 대변되는 서민생활비 경감이 이 같은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MB(이명박) 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친기업(Business Friendly)'이다. 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는 성장도, 일자리도 어렵다는 분명한 상황인식 속에서 과감히 규제를 풀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역량을 쏟고 있다. 이 같은 이 당선인의 친기업 행보와 시장주의는 역으로 정부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각 부처로 혼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8일 국회에서 5당 원내대표 및 정 책위의장과 회동을 갖고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및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 절차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현행 18개 부처에 해당하는 중앙 행정 조직은 14~15개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정홍보처는 폐지되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내려졌으며 부총리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강한' 청와대를 만들어낸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 개혁 의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실패한 교육정책을 상징해온 현행 교육부를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입업무를 비롯한 주요 기능을 민간 또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3불 정책'으로 대변되는 교육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외교·통일분야는 이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표방 해온 '유연한 상호주의' 원칙이 그대로 투영되었다.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전제조건만 충족한다면 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 북 협력기금을 마련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한·미동맹과 관련, 전통적 혈맹수준으로 복원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오는 14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8일 "국가경제를 발전 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고 선진화된 사회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합민 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 표 등 주요 정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새로운 정부가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일절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 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설익은 정책이 쏟아 지고 있다는 김효석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 "확정

되지 않은 것이 보도돼서 그렇다"면서 "정부조직 법 등 관련법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혼란이 빚 어질 것이라 우려에 대해선 "지난 20년간 이미 안이 다 나와왔다"면서 "현 시점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방부·노동부 등 인수위 업무보고 주요 내용

"전작권 이양美와 협의 재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국방부·문광부·노동부·기획예산처 등 1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전작권전환 전환, '국방개혁 2020' 조정, 신문법 폐지, 국가재정 사업 검토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끝으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각 부처의 공식 업무보고를 마무리 했다. 지난 2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된 업무보고는 청와대와 소방 방재청을 제외한 57개 중앙 행정 기관을 상대로 실시했다. 인수 위는 이 같은 업무보고 결과를 종합 정리해 10 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 인수 위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 작전통제권(전 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전 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 했다.

인수위는 또 현재 68만명 병 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 2020'과 관련,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길 수 있 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군사분계 선 25km 이내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개별 군사시설의 경계선(최외곽) 500m 이내로 완화, 축소하기로

했다. ◇문광부 = 강승규 인수위 부 대변인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 성 확보,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위해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 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개정 신문법에서는 매체 융합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원 등 위험 결정 조항도 바꾸게 된다"고 설 명했다. 인수위는 또 문화콘텐츠를 키우

준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의 사 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대책마련을 노동부 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 업무 중 노동 쟁의 조정 업무는 노동위원회로 이관하고 노동부는 고용정책에 매 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 =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2009년 기준으로 예산 24조원 절감 공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절감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 수위는 조만간 모든 재정사업 을 재로베이스 에서 재검토해 구제적인 추진 방안을 '2008~ 2012년 국가재 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하 는 한편 강력한 세 출구조조정

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 도입 등을 통해 대폭적인 예산 절감을 추진 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2007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 4% 수준인 국가채무를 임기 내 30% 이하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 다. 아울러 재정위험 요인인 국 민연금과 공무원,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과 보충채무, 공적부 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방부 "군사분계선 제한구역 완화" 문광부 "신문법 폐지...대체 입법 추진" 노동부 "비정규직 보험 가입률 확대" 기획처 "발상 전환...예산 24조 절감"

기 위해 문화 예산이 현재의 1%에 서 2%로 늘리기로 했으나 문화콘 텐츠를 키우기 위해 지원업무를 문화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동부 = 인수위는 노사관계 안정화 목적의 노·사·민·정 대 타협을 위한 추진기구를 인수위 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 노사 정위원회를 범위를 확대한 사회 적 대화 기구를 구성키로 한 것 이다. 인수위는 또 현재 30~40% 수

2009학년도 공립학교 (유치원·초등·중등·보통) 교사임용시험?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무료공개강의, http://www.rainyday.com, 529-0090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2009학년도 임용시험 3시간 전empt으로 현장을 다! 529-0090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을 통해 어린이에게는 호기심을, 청소년에게는 자존감을, 어른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신서동 1-1 (신서초등학교) 문의: (062)434-7857

제2기 Lab Manager 취업교육 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1. Lab Manager란? 2. Lab Manager의 역할 및 직무 3. Lab Manager의 중요성 4. Lab Manager의 자격 요건 5. Lab Manager의 교육 과정